



중국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C-ROSS 2.0)

이소양 연구원

요약

중국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시행한 신지급여력제도(C-ROSS 1.0)의 수정안(C-ROSS 2.0)을 2022년부터 시행함. C-ROSS 2.0은 요구자본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기본자본의 질을 높임으로써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고령사회 대비, 기후리스크 대응,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포함함

○ 고령사회 진입, 기후리스크 이슈 부상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시행한 신지급여력제도(C-ROSS 1.0)를 수정하여(C-ROSS 2.0) 2022년부터 시행함

- 중국의 지급여력제도(China Risk-Oriented Solvency System; C-ROSS)는 유럽의 Solvency II와 유사한 정량적 자본요구(Pillar 1), 정성적 감독요구(Pillar 2), 시장규율(Pillar 3)인 3층 체계로 구성됨(〈표 1〉 참조)

〈표 1〉 중국의 신지급여력제도(C-ROSS) 구조

Pillar 1(정량적 자본요구)	Pillar 2(정성적 감독요구)	Pillar 3(시장규율)
• 가용자본(기본자본, 보완자본)¹⁾ • 요구자본(계량화 가능 위험액, 통제위험 위험액, 부가 위험액)²⁾ • 생명보험계약부채 • 보험위험액(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재보험)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스트레스테스트	• 위험종합등급평가(IRR) • 위험관리평가(SARMRA) • 유동성위험 • 자본계획	• 지급여력 정보공개 • 지급여력 정보교류 • 보험회사 신용평가 • 지급여력보고서

주: 1) 가용자본은 재무회계상 자산에서 보험계약과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손실·흡수 능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함

2) 요구자본은 계량화가 가능한 위험(보험, 시장, 신용위험), 계량화가 어려운 통제위험(운영, 전략, 평판, 유동성 위험), 시스템적 주요 보험회사 등에 부가되는 추가 위험의 위험액으로 구성됨

자료: 德勤(2022), “偿二代二期监管发文解读报告”

○ C-ROSS 2.0은 정량평가 지표인 요구자본 중 금리위험과 중대질병위험의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으며, 기본자본 중 보험계약의 미래 잉여금과 신종자본증권 반영 비율을 제한하여 자본의 질을 제고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함

- 금리위험 평가 시 사용하는 수익률 곡선은 국채의 750일 이동평균에서 60일 이동평균으로 기간을 축소하여 시장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수정하여 자본관리를 강화함

- 중대질병(Critical Illness; CI)위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¹⁾ 보험위험의 하위 항목인 '질병발생률위험' 외에 '질병추이위험'을 신설하여 보험회사가 CI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기본자본(핵심자본) 항목 중 보유계약에 대한 장래 이익인 '보험계약 미래 잉여금'은 기본자본의 35%로, 신증자본증권은 기본자본의 30%로 제한함

○ 또한 C-ROSS 2.0은 종합위험평가등급, 위험관리평가 방법을 조정하고 자본계획 수립을 새롭게 요구하여 보험회사 지급여력의 정성평가 지표를 개선하며 지급여력 정보공개와 지급여력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투명성을 제고함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상태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종합위험평가등급을 기존의 4개 등급(A, B, C, D)에서 8개 등급(AAA, AA, A, BBB, BB, B, C, D)으로 세분화하며,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관리평가점수 산출에 있어서 위험관리평가점수 상위 15% 보험회사에 가점을 제공함
- 보험회사가 적절한 지급여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래 3년의 자본규모, 자본구조, 자본출처 및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본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자본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본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보험회사가 수시로 공개하는 지급여력 정보에 중대사항(분사 개업, 중대 재보험계약, 해약금 등), 위험액(보험, 시장, 신용위험의 하위 위험별 위험액),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함

○ 상당수 중국 보험회사들은 C-ROSS 2.0 시행으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대응하여 채권 발행, 주주 증자 등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함

- 2022년 1/4분기 중국 보험회사들의 평균 핵심지급여력비율(최저자본 대비 기본자본)과 종합지급여력비율(최저자본 대비 가용자본)은 각각 150%, 224%로 전년도 말에 비해 각각 70%p, 8%p 하락함
-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20여 개 중국 보험회사가 금융당국에 약 310억 위안(약 5조 6,700억 원)의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음²⁾

○ 한편, 중국 금융당국은 C-ROSS 2.0에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개발 장려, 보험회사의 탄소중립 참여 및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요구자본을 경감시킴

- 보험위험의 하위 항목인 장수위험의 위험액은 이전보다 10% 감소시켜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개발을 장려함
- 녹색채권(Green bond)의 신용위험액은 이전보다 10% 경감시켜 보험회사의 녹색채권 시장참여를 촉진하고 채권 발행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유도함
-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20억 위안(약 3,600억 원) 미만의 보험회사에 한해 자동차보험위험액을 10% 경감하고, 전문기술보험회사³⁾에 한해 보험위험액은 10% 감소시켜 중소형 및 전문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함

1) 2020년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9,300억 위안으로 2009년 이후 연간 28% 성장하였으며 이중 중대질병보험이 4,350억 위안으로 거의 절반(47%)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건강보험 시장의 핵심 상품이 됨(Swiss Re(2022), "Spotlight on China: C-ROSS II encourages greater stability in Chinese insurance sector")

2) 21세기경제망(2023), "偿二代二期全面落地在即 险企加快增资步伐"输血"

3) 중국의 전문기술보험회사는 IT회사를 대상으로 위험보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하는데, 2018년에 설립된 태평과 학기기술보험회사는 대표적인 전문기술보험회사임